

달성군, 청·중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7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이용자 상시 모집...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7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4년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기본서비스로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고 특화서비스로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질병·부상·고령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년·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13~39세)으로 소득 기준은 없으나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 기본돌봄 및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재가돌봄서비스' > 청소,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

스'가 있다.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월 12시간에서 월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및 돌봄 필요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등)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달서구,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 30m '금연구역' 지정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7일(토)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금연구역인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가 30미터로 확대되고 학교는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달서구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달서구청〉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혀로 보는 건강상태, 당신의 혀는 무슨 색인가요?

혀를 통해 건강상태를 진찰하는 방식을 설진(舌診)이라고 한다. 혀의 색, 모양, 설태색과 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데, 건강한 상태의 혀는 선홍색을 띄며, 약간의 설태가 있는 상태다.

혀에는 혈관이 풍부하여 혀의 색으로 혈액순환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혈허(血虛), 즉 피의 순환기능이 떨어지면 옅은 분홍색에 가까운 담백설(淡白舌)을 볼 수 있으며, 열이나 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붉어진 홍설(紅舌), 어혈이 있거나 몸이 찬 사람에게서는 보랏빛에 가까운 자설(紫舌)을 확인할 수 있다.

설태(舌苔)를 통해서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데, 설태는 구강세포, 구강 내 세균, 음식 등이 혀표면에 쌓여 있는 것으로 건강한 사람도 얇은 백태가 있다. 설태가 두껍게 형성된 경우 체내에 습담(濕痰)이라 부르는 노폐물이 많은 상태로 볼 수 있다. 설태가 군데군데 벗겨진 경우는 지도설이라고 하며 영양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난다. 식욕이 없는 아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설태가 없어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는 혀도 있는데, 이를 경면설(鏡面舌)이라고 하며 지도설보다 진행된 만성영양결핍, 악성빈혈, 만성위축성위염, 면역력 저하 등의 상태에서 나타난다.

혀의 모양도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혀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한 것을 치흔(齒痕)이라고 하며, 수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진대사가 떨어진 상태에서 나타난다.

혀는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양치를 할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신의 혀를 자주 들여다보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강하지 않은 혀의 상태가 보인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정확하게 진료받는 것이 좋다.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한의원 ☎053-564-0401



달성군보건소 '건강한 여름나기' 감염병 예방 캠페인

달성군보건소(군수 최재훈)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6일(화)과 18일(목) 화원역 및 대실역사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발생 우려가 높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과 농작업, 나들이 등 야외활동 시 주의해야 할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위기임산부' 직접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신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한 부모가족복지시설인 가톨릭푸름터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 7월 19일(금)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1308)가 전국에서 24시간 운영되고, 발신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수신해 긴급상황에 신속대응하므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제공:대구시청〉